

고대 한반도의 통일과 그 현대적 함의

김창석*

국문요약

통일이란 공통의 역사적 경험과 동질의 문화를 기반으로 형성된 집단이 나뉘어져 있다가 단일한 정치체로 결합하는 것을 가리킨다. 삼국의 주민들은 서로를 같은 민족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지 모르나 객관적 실체로서 민족의 모체가 되는 집단으로서 이미 성립되어 있었다. 그런데 신라는 흡수된 백제와 고구려 주민에 대해서 차별 정책을 펼쳤다. 그리고 주로 당나라, 일본과 외교교섭과 문화교류, 교역을 벌임으로써 백제와 고구려가 각기 맺고 있었던 광역의 외교·문화 네트워크를 계승하지 못했다. 따라서 신라의 삼국 통일론은 인정될 수 없고, 현실에서는 발해가 고구려 계승을 자처하며 신라와 병립하는 남북국시기가 펼쳐졌다.

후삼국시기의 궁예는 신라의 전통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데 기여했으나, 이를 대체할 새로운 이념이나 정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견훤은 유능한 군사 지휘관이었고, 대외 관계에 대한 안목이 있어 주변의 여러 국가들과 외교교섭을 벌였다. 그러나 종래의 지배체제를 재정비하거나 군사적 위력을 사용하여 정치·사회의 혼란을 잠재우려는 태도가 보일 뿐 신질서에 대한 전망을 갖지 못했다.

이에 비해 왕건은 유력한 지방세력을 우대하고 백성들에 대한 수취를 완화하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을 펴고, 유교적 정치체제를 수립하고자 했다. 이는 신라의 골품제적 질서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

* 강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kcseok@kangwon.ac.kr

리고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나 문화관에 매몰되지 않고, 삼국시기 이래의 전통문화를 중시했다. 발해는 요나라에게 멸망당하기 전부터 주민들이 고려로 망명해오기 시작했는데, 멸망 직후에는 왕족과 귀족들이 대거 고려로 흡수되었다. 따라서 왕건의 후삼국 통일이야말로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족 통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삼국 통합, 후삼국 통일의 경험을 통해서 각 시대가 당면했던 과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이 곧 민족 통일이라는 결실로 이어졌음을 발견한다. 생존권 확보, 사회적 정의, 전통문화와 세계문화의 조화와 같은 오늘날의 근본 문제에 대한 인식을 남과 북이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실천해나갈 때 민족의 재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통일, 삼국 통합, 후삼국 통일, 리더십, 재통일

I. 머리말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고, 그것이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족통일이었다는 평가가 있다. 근래 이에 대한 반론이 속속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삼국통일과 통일신라론은 학계의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¹⁾ 이를 인정하거나 혹은 반박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무엇이고, ‘민족’이 무엇이며 삼국시기에 과연 우리 민족이 형성되어 있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병합(Merge) 또는 통합(Integration)은 현재 병존해있는 어떤 조직, 회사, 국가, 종족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다. 이에 비해 통일(Unification)은 원래 하나였던 집단이 분열되었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가리킨다(노태돈 1998a, 66).

곧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동질의 문화를 기반으로 한 집단이 형성되

1) 대표적인 한국사 개설서인 한영우, 2014. 『다시찾는 우리역사』. 서울: 경세원, 121-122를 보면, 신라의 삼국통일이 영토의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으나, 삼국 문화의 정수가 통합됨으로써 민족문화의 주류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민족 통일은 조선시기까지 단계적으로 성숙되어 왔으나 신라의 삼국통일이 그 출발점을 이뤘다고 평가한다.

었고, 이것이 어느 때부터인가 나뉘어져 있다가 단일한 정치체로 결합하는 것이 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은 원래 공통의 문화를 기반으로 형성된 집단이었는가? 이것은 우리 역사에서 민족이 언제 형성되었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여러 견해가 있으나 대표적인 주장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고조선의 주민이 ‘조선옛유형 사람’을 잇는 집단이었는데, 이들이 바탕이 되어 조선 민족, 즉 우리 민족이 형성되었다는 주장이다.²⁾ 이복 학계가 내세운 이 견해는 인종과 혈연을 민족의 핵심 요소로 이해하고, 고조선이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로서 나중에 성립된 여러 정치체들이 모두 고조선에서 분화되어 나왔다는 역사 인식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고조선의 王都가 초기부터 지금의 평양 지역에 있었고 세계 4대 문명에 버금가는 ‘대동강문화’를 이룩할 정도였다고 하여(李淳鎭 外 2001) 우리 역사의 발전을 고조선을 시초로 하여 체계화 하고, 민족 형성의 뿌리를 고조선 시기에서 찾았다.

그러나 이러한 고조선 중심의 역사 인식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 역사상 고조선이 최초의 국가였지만 만주와 한반도 전 지역을 포괄하지 못했고, 주변에 있던 일부 정치체의 발전에 영향을 끼쳤지만 부여, 고구려, 삼한 등과 계승 관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조선옛유형 사람은 현대 한국인의 형질적 특성을 기초로 하고, 이를 적은 개체의 신석기 및 청동기시대 인골과 비교하여 상정한 인종 집단이어서 학문적 엄밀성을 갖지 못한다.

둘째는 조선후기에 비로소 민족이 형성되었다는 주장이다. 이남 학계의 일반적 견해라고 할 수 있다.³⁾ 역사학자들은 보통 인류사회가 근대로 접어들면서 민족이 형성되었다고 보는데, 이러한 일반 이론을 우리 역사에 적용하게 되면서 조선 후기 민족 형성론이 출현했다. 서양의 경우 중세는 지방분권적인 봉건사회였고, 중세 말에 농업생산이 증대되면서 상품 생산과 시장의 확산을 배경으로 하여 전국적 유통경제망이 성립했다. 이를 기초로 하여 분

-
- 2) 손영중·박영해. 1987. 『조선통사(상)』.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6의 머리말에서 “조선 인민은 인류 역사의 여명기부터 이 땅에서 하나의 핏줄, 공통된 문화를 가지고 살아온 단일민족”이라고 했고,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79. 『조선전사 1』.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332-346은 조선옛유형 사람이 신석기시대에 형성되어 그 체질 인류학적 특징이 청동기시대 주민으로 이어졌다고 썼다.
- 3) 일레로 권태억·정용욱. 2008. “근·현대 한국 민족주의의 형성과 전개.” 한국사특강편찬위원회 편. 『(개정신판) 한국사특강』. 서울대학교출판부는 3·1운동을 계기로 하여 민중의 민족적·계급적 자각이 고양되었고, 민족으로서의 결집이 완성되었다고 보았다.

산적인 제후국가들이 통합되어 근대 국민국가(Nation State)가 등장하고 이것이 민족 형성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현상을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 변동 속에서 찾아보려고 했던 것이다. 다른 지역의 경험을 참고하여 우리 역사를 이해해보는 시도는 의미가 있으나 서구의 고대, 중세, 근대 사회와 우리의 그것은 큰 차이가 있다. 우리의 경우 늦어도 6세기 초가 되면 삼국은 모두 중앙집권적 영역국가체제를 갖춘다. 왕권 중심의 집권체제는 고려, 조선 시기까지 이어졌고, 근대화를 추구하는 주체 세력의 형성과정이 서구와 달랐다고 보인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우리 역사에서 민족의 형성 시점은 서구의 경험보다 이른 시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세 번째 견해인 4세기 형성 개시론은 이러한 고민 속에서 제기되었다. 313년에 낙랑군이, 314년에 대방군이 소멸하면서 삼국은 서로 국경을 마주하게 되었다. 삼국 간 직접 전쟁이 벌어지고 한편에서는 주민의 이주와 교류가 이뤄졌다. 전쟁 역시 전투가 벌어지고 포로가 오가면서 물자가 이동하고 첨단 기술이 전해지는 통로였다. 충돌과 교류가 진전됨으로써 삼국은 비록 국가는 달리했으나 주민간의 문화적 동질성이 짙어지고, 지배질서와 사회제도의 유사성이 높아졌다(盧泰敦 1997). 이를 우리 민족 형성의 단초라고 보거나, 이때 준민족(Narodnost)이 형성되어 근대에 민족이 출현하는 토대가 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신라가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키기 전 삼국의 주민들은 서로를 같은 민족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지 모르나 객관적 실체로서 민족의 모체가 되는 집단으로서 이미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신라가 삼국을 온전히 하나로 합쳤다면 민족의 통일을 이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삼국 시기 말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실제 상황이 어땠는지 살펴보자.

Ⅱ. 삼국 말기의 국내·외 정세

1. 7세기 격동의 동아시아

554년 지금의 충북 옥천군에 있는 관산성에서 백제와 신라가 전투를 벌였고, 그 와중에 백제의 성왕이 패사했다. 백제 측에는 가야와 왜의 군사가 가

담했고, 고구려는 신라를 후원하고 있었다. 당시 귀족들의 만류를 물리치고 태자인 부여창(뒤에 위덕왕으로 즉위)이 신라 군사에 대한 공격을 결정했고, 성왕이 아들을 도우러 가다가 변을 당했다. 위덕왕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아버지를 잃었다고 여겼고, 신라에 대한 원한 또한 깊었을 것이다.

위덕왕은 아버지의 복수를 갚기 위해 와신상담했고, 무왕과 의자왕 때 본격적인 신라 공략이 시작되었다. 특히 의자왕 2년(642)의 대야성 함락은 신라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대야성은 지금의 경남 합천군에 있었는데, 신라의 서쪽 변경을 방어하는 요충이어서 이곳을 장악한 백제군은 경주의 금성을 직격할 수 있었다(金昌錫 2009). 진흥왕 때인 553년에 한강 하류역을 장악하여 백제를 제압하고, 고구려로부터 함경남도의 동해안 지역을 양보 받아 전례 없이 영토를 확대한 신라가 이제 망국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대야성의 성주는 김품석이었었는데 조정의 실력자인 김춘추의 사위였다. 탐욕스러웠던 품석은 부하의 부인을 빼앗았고, 이 때문에 그 부하가 백제군과 내통하여 성이 무너졌다. 백제군은 품석과 그의 부인, 즉 김춘추의 딸을 죽여서 지난날 성왕이 당한 치욕을 씻었다. 이로 인해 김춘추는 국가적 위기에 대처해야 할 뿐 아니라 자신의 혈육과 사위의 죽음을 되갚아야 할 절박한 처지에 놓였다.

그는 먼저 고구려를 찾아가 지원을 요청했다. 당시 고구려는 연개소문이 집권하고 있었다. 고구려 측은 김춘추와의 담판에서 군사 지원의 대가를 요구했다. 즉 신라가 지난날 차지한 竹嶺 이북의 땅은 고구려의 옛 영토이므로 이를 반환하면 신라를 돕겠다고 역제안을 했다. 확답을 못한 김춘추는 보장왕에 의해 투옥되었고, 별주부전에 나오는 ‘토끼의 간’ 이야기를 이용하여 신라로 탈출했다고 한다.⁴⁾ 이로써 고구려와 신라의 협상은 결렬되었다.

김춘추는 다음으로 647년에 왜를 찾아 협조를 요청했다. 일본 측 기록에 의하면, 그는 “용모가 아름답고 말을 잘 했다.”고 하므로⁵⁾ 외교관의 면모를 타고난 듯하다. 그러나 왜는 전통적으로 백제와 우호 관계를 맺고 있었으므로 백제를 멀리하고 신라와 손을 잡을 수 없었다. 대왜 협상 역시 좌절되었다. 더욱이 같은 해에 신라에서는 정변이 일어났다. 상대등 비담이 선덕여왕이 정치를 잘 하지 못한다고 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관군은 월성에, 반란군

4) 『삼국사기』 권41, 열전1 김유신 상.

5) 『일본서기』 권25, 효덕천황 대화 3년.

은 명활산성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관군 진영으로 유성이 떨어지자 관군의 사기가 떨어지고 반란군은 환호했다고 하므로⁶⁾ 비담 측에 가담한 세력이 만만치 않았음을 짐작케 한다. 관군을 지휘한 김유신이 기지를 발휘하여 불을 붙인 연을 띄워 사기를 회복하고 결국 반란군을 진압했다. 그러나 비담의 난으로 인해 신라는 안으로도 왕권이 도전을 받는 상황이 되었다.

신라가 국내·외의 난국을 맞아 이를 타개하고 기델 상대는 이제 당나라 밖에 남지 않았다. 김춘추는 당으로 달려가 태종 이세민과 협상했다. 당나라는 지원군을 보내주는 대신 당나라의 제도와 예법을 신라가 대폭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신라는 더 이상 선택지가 없었고, 이를 수용함으로써 진덕여왕 2년(648) 마침내 신라-당 군사동맹이 체결되었다.

김춘추는 이때 당나라의 관복을 받아왔다.⁷⁾ 이 관복은 신라의 관료들이 신라 국왕의 신하임과 동시에 당 황제의 신하임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효과를 발휘했다. 중국식 예법에 따라 홀을 들도록 했고, 종래 정월에 치르던 신년 축하 의례를 중국식 하정례로 바꿔 실시하게 되었다. 또 당나라의 율령이 도입되어 이미 법흥왕 때 반포되어 시행되던 신라 율령의 형식과 내용이 구조적으로 변경되었다(金昌錫 2018). 무엇보다 법흥왕 때부터 제정하여 사용하던 年號를 폐기하고 당나라의 연호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것은 신라가 명실상부하게 당나라 중심의 국제질서에 포섭되었음을 보여주는 조치였다(김창석 2010, 107-109).

2. 백제, 고구려의 멸망과 신라-당 전쟁

백제의 의자왕은 즉위 초에 선정을 베풀고 신라와 벌인 전쟁에서 승승장구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의자왕은 국력을 과신하고 국제정세의 변동에 둔감해진 듯하다. 의자왕 12년(652)에는 당과의 외교관계가 단절되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왜 관계를 강화했다. 더욱이 의자왕이 중병에 걸렸고 정사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노중국 2010, 327-334).

무열왕 7년(660) 소정방이 거느린 13만의 당군이 신라 군사와 서해의 덕

6) 『삼국사기』 권41, 열전1 김유신 상.

7) 『신당서』 권220, 열전145 신라 “明年 遣子文王 及弟伊贊子春秋 來朝 拜文王左武衛將軍 春秋特進 因請改章服 從中國制 內出珍服賜之”.

적도에서 만나 합류했다. 그해 7월에 지금의 충남 논산시 인근의 황산벌에서 백제군과 신라군이 결전을 벌였다. 계백이 5천 명의 백제군을 이끌었는데, 신라 측 장수인 김품일이 아들인 화랑 官昌을 출전시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사하게 했다. 관창의 감투정신으로 인해 고무된 신라군은 김유신의 지휘 아래 황산벌 전투를 이기고 왕도인 사비성을 함락시켰다.

8월에는 김법민(뒤에 문무왕으로 즉위)이 의자왕의 항복을 받고 검일과 모척을 직접 심문하여 처형했다. 검일은 대야성의 성주 김품석에게 아내를 빼앗긴 사람이고, 모척은 그보다 앞서 백제군에게 투항하여 검일과 내통한 인물이다. 관산성 - 대야성 - 사비성으로 이어지는 죽임과 보복의 연쇄를 확인할 수 있다(김창석 2020, 311-314).

한편 당나라는 백제 옛 땅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점령 정책을 실시했다. 사비성이 있던 현재의 충남 부여읍에 가보면, 정림사지 5층석탑이 있다. 1층 탑신부에 이른바 「평제비명」이 새겨져 있는데, 소정방이 백제를 평정한 내력과 그 공적을 기린 글이다. 정림사는 사비도성의 한 복판에 있던 백제의 상징적인 사찰인데, 그 불탑이 점령군의 기념비가 된 것이다. 한 나라의 보물을 훼손한 야만적 행위이지만, 당나라로서는 이를 통해 백제의 새 주인이 자신임을 가장 노골적인 방법으로 선언할 수 있었다.

여기서 김춘추와 당 태종이 맺은 군사동맹의 내용을 살펴보자.

선왕(무열왕)께서 정관 22년(648)에 당의 조정에 들어가 태종문황제를 직접 뵈고서 은혜로운 칙명을 받았습니다. (칙명에 이르기를) “내가 지금 고구려를 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너희 신라가 두 나라 사이에서 간섭을 받아 매번 침략을 당하여 편안할 때가 없음을 가엾게 여기기 때문이다. 산천과 토지는 내가 탐내는 바가 아니고 보배와 백성들은 나도 가지고 있다. 내가 두 나라를 평정하면 평양 이남과 백제 땅은 모두 너희 신라에게 주어 길이 편안하게 하겠다.”라 하시고, 계책을 내리며 군사의 기일을 정해주셨습니다.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1년)

위의 기록은 문무왕이 신라에 파견된 당나라 장수 설인귀에게 보낸 서신의 일부이다. 국왕이 외국의 고위 무장에게 보낸 글이므로 일종의 외교문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보면, 양국은 힘을 합쳐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킨 후 대동강 이남의 고구려 땅과 백제 영토는 신라가, 대동강 북쪽의 고구려

땅은 당나라가 영유하도록 합의했었다. 따라서 당군의 백제 주둔과 점령 정책은 신라와 맺은 약조를 깨고 백제 땅을 차지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이다.

고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663년에 문무왕을 계림주대도독으로 책봉했다. 계림, 즉 경주를 당나라의 지방으로 삼고 문무왕을 이곳을 다스리는 지방관으로 임명한 것이다. 이로써 신라마저 복속시켜 고구려의 고토인 만주는 물론 한반도 전역을 당나라의 권역으로 삼겠다는 거대한 동방전략을 착착 진행하고 있었다(김창석 2010).

이에 대응하여 신라는 669년에 백제 고지에 진입하여 작전을 펼쳤고, 670년에는 고구려 유민으로 구성된 군사와 합동으로 압록강 이북으로 진격하여 당군과 충돌했다(노태돈 2009b, 238-244). 신라-당 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문무왕 11년(671) 신라군이 사비성에서 당군을 축출했고, 당이 전세를 역전시키려고 시도한 매소성(경기도 양주 부근)과 기벌포(금강 하구의 포구) 전투에서 신라가 승리함으로써 676년에 신라-당 전쟁은 끝났다.

Ⅲ. 전쟁의 목적과 결과

1. 삼국 통일인가, 백제 통합인가

660~676년에 걸쳐 만 16년 동안 이어진 장기 전쟁의 결과 삼국 중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했다. 이것은 신라가 원하던 것이었다. 과연 이 전쟁을 삼국 통일전쟁이었고, 이로써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고 볼 수 있을까?

앞서 살핀 대로 삼국은 4세기 초 이래 동질적인 문화공동체를 형성해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나라로 정치체가 나뉘어 있었으므로 이들이 제대로 통합된다면 삼국 통일, 나아가 최초의 민족통일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인정하는 논자들은 ‘삼한일통의식’을 근거로 내세운다. 원래 삼한은 마한, 진한, 변한을 가리켰으나, 삼국 말기가 되면 ‘삼한’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바뀌었다.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후 신라인들이 삼한, 곧 삼국을 일통(통일)했다고 자부했다는 것이다.

… 사악함을 벌하고 백성을 (사랑하였고), 삼한을 통합하여 땅을 넓혔으며, 창해에 살면서 위세를 떨치시니 …… □인사는 창고가 가득 차 넘치니 백성이 추위와 굶주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물과 흙은 … (『청주 운천동 사적비』)

신문왕 6년(686) 지금의 충북 청주의 한 절터에 건립되었던 비석이 언제인가 파손되었고, 1980년대 초에 그 일부가 발견되었다. 위 구절은 신라-당 전쟁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다음 신라인들이 삼국통일을 자부했음을 보여준다(노태돈 1998a).

문제는 삼한일통의식이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역사적 실재를 반영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신라의 지배층들이 불완전한 통일이라는 현실을 호도하고 자신의 공적을 높이기 위해 과장된 의식, 관념을 내세웠을 수 있다. 근래에는 이 비석의 말미에 신라 말기의 관명이 보이므로 이 비문을 7세기 중엽의 산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윤경진 2019) 제기되기도 했다.

삼국통일론의 또 다른 근거는 신라-당 전쟁이다. 비록 외세의 힘을 빌려 동족의 나라를 정복했으나 이후 당나라와 전쟁을 불사하여 결국 대동강 북쪽으로 당군을 몰아냈다는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신라가 당과 전쟁을 벌인 것은 당이 신라마저 병합하려는 동방정책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과 일전을 벌이지 않고서는 나라의 명맥을 이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신라가 백제에 대해 대대적으로 반격을 가한 것도 대야성 함락으로 닥친 국망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신라-당 전쟁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 ‘외세’를 몰아내기 위한 민족적 대의 때문에 결행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신라는 백제의 영토와 주민을 온전히 차지했다. 의자왕을 비롯한 다수의 지배층이 당으로 끌려갔지만 절대 다수의 인구는 신라로 흡수되었다. 그러나 고구려의 경우는 지배층이 당으로 끌려갔을 뿐 아니라 대동강을 경계로 그 북쪽의 영토와 주민을 당이라는 이민족 정치체가 차지했다. 이는 당나라와 군사동맹을 맺을 때 약속한 것이므로 당연한 결과였다. 이로 말미암아 고구려가 망한 지 30년 만인 698년에 고구려의 고지인 남만주에서 그 유민이 주도하여 발해를 건국하게 되는 것이다. 신라의 통일을 인정하게 되면 발해의 건국 배경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고, 발해는 우리 역사 체계 속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당나라가 이민족의 국가이지만 신라가 그 힘을 빌린 점은 당시 존망의 기

로에 선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으므로 이해할 만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신라는 흡수된 백제와 고구려 주민에 대해서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차별 정책을 펼쳤다. 극히 일부의 인물에게 진골의 신분을 주고, 일부 지배층에게 6·5·4두품을 수여했을 뿐이다. 대부분의 고구려, 백제 유민은 골품을 받을 수 없었다. 삼국 시기의 신라 주민 중 왕경, 즉 경주 출신만이 골품을 받았고 지방민은 그렇지 못했는데, 이제 백제, 고구려 유민은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신라의 지방민이 되었으므로 원래 신라의 지방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처지가 된 것이다. 두 나라의 지배층은 일부 상층 인물을 제외하고는 골품을 받을 수 없었으니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신라 중앙으로 진출하여 관료가 될 수 없었다. 이처럼 백제, 고구려 유민에 대해 정치·사회적 차별 대우가 이뤄진 국가를 통일국가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7세기 중엽 이후, 즉 중대의 신라는 주로 당나라, 일본과 외교교섭과 문화교류, 교역을 벌였다. 백제는 존립할 때 중국의 남조 정권, 왜는 물론이고 동남아시아의 여러 정치체와 교섭하고 문물을 교환했다(권오영 2019). 고구려 역시 중국 왕조 및 왜와 더불어 북방의 유목 종족, 멀리는 강국(지금의 우즈베키스탄)과 같이 파미르고원 너머의 중앙아시아 정치체와 교섭을 벌였다. 이러한 광역의 외교·문화 네트워크가 신라 중대에 계승되지 못했다. 비록 세계제국 당나라를 통해 여러 선진 제도와 문화를 수용할 수 있었으나, 대외적인 역량의 손실을 불러온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신라의 삼국 ‘통일’이 많은 한계를 안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백제통합론과 등치시켜서는 안 된다고 본다. 백제 통합에 그쳤다고 본다면 신라가 분명히 고구려 일부 지역을 흡수한 사실을 평가 절하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동강 이남의 평안남도, 황해도, 경기 북부 지역은 고구려의 정치·경제·문화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고, 신라로 편입된 다음에는 이곳에 패강진, 혈구진과 같은 군진이 설치되는 등 국가 발전에 기여한 바가 컸다.

결론적으로 신라의 삼국 통일은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신라의 삼국 통합으로 봐야 하고, 그것도 불완전한 통합에 그쳤다. 고구려의 북방 영토와 인민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발해가 고구려 계승을 자처하며 세워져 신라와 병립하는 남북국 시기가 펼쳐졌고, 백제와 고구려 유민에 대한 차별이 축적되면서 신라 하대가 되면 이를 빌미로 하여 후백제, 후고구려가 건국 되기에 이르렀다.

2. 삼국 통합의 동력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지 못했으나 삼국 가운데 최후의 승자가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 힘은 어디서 왔을까? 삼국 중 고구려가 가장 먼저 고대국가의 체제를 갖추고, 백제가 그 뒤를 이었으니 신라는 가장 후진적인 나라였다. 그런데 역으로 신라는 후발 주자로서의 건강성과 역동성을 갖고 있었다. 앞서 나간 고구려와 백제가 노쇠해진 데 비해서 늦게 출발한 신라가 오히려 건강도를 늦추지 않고 가속을 높여나가는 형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예전대 고구려와 백제는 7세기 전반이 되면 귀족연립체제가 성립된다. 유력한 귀족들이 제후하여 권력을 분점하고, 국왕은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균형추와 같은 역할을 맡고 있었다. 이에 비해 신라는 선덕여왕, 진덕여왕 시기를 맞아 왕권이 불안해지기는 했으나 강력한 중앙집권과 지방 지배가 관철되고 있었다. 철저한 계급구조를 통해 왕경인과 지방민을 차별했고, 골품제라는 폐쇄적 신분제를 통해 이러한 차별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전덕재 2002). 이를 배경으로 하여 전국적인 인력과 물자의 동원이 가능했다. 여기에 더해 김춘추의 활동으로 대표되듯이 기민한 외교 전략을 펼쳐 백제와 고구려를 제압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백제는 앞서 보았듯이 의자왕이 신라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과신했고, 국제 정세의 변동을 무시하여 당나라가 신라와 손을 잡고 바다를 건너와 공격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고구려는 당시 집권자였던 연개소문의 패착이 국망으로 이끈 주요인이었다. 수와 당은 중국을 통일한 후 동방의 강국인 고구려를 정복하고자 버르고 있었다. 서방의 강적을 맞이하여 고구려로서는 남방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그렇지 않으면 서방과 남방에 두 개의 전선을 갖게 되어 군사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었다(노태돈 1998b, 60-65).

고구려의 왕인 고장(보장왕)은 평소 김춘추의 명성을 들었기 때문에 군사의 호위를 엄중히 한 뒤에 그를 만났다. 춘추가 나아가 말하기를, “지금 백제는 무도하여 큰 뱀과 살진 돼지가 되어 저희 영토를 침범하므로 저희 임금님 대국의 병마를 얻어서 그 치욕을 씻고자 합니다. 이에 저로 하여금 대왕께 명을 전하도록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고구려의 왕이 말하기를, “죽령은 본디 우리 땅이니, 너희가 만약 죽령 서북의 땅을 돌려준다면 군사를 내줄 수 있다.”라고 하였

다. 춘추가 대답하기를, “신은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군사를 청하는데, 대왕께서는 환단을 구제하여 이웃과 친선하는 데는 뜻이 없고 단지 사신을 위협하여 땅을 돌려 줄 것만을 요구하십니다. 신은 죽을지언정 다른 것은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였다.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여왕 11년)

642년 보장왕은 고구려로부터 원군을 얻기 위해 방문한 김춘추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군사 지원의 대가로 신라에게 죽령 이북의 땅을 반환하도록 요구했다. 보장왕과 김춘추의 담판이었지만 당시 실권자는 연개소문이었으므로 보장왕이 제시한 조건은 연개소문의 전략을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결국 협상은 결렬되고 양국 관계는 냉각되었다. 이에 신라는 최후의 보루인 당나라에 접근해갔다. 다음 해부터 신라와 당나라와 사이에는 사신과 유학승이 오가면서 군사동맹의 토대를 쌓았다.

만약 이때 고구려가 신라와 협상하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고 타협의 길을 갔다면 신라와의 대립을 피하고 당과의 일전에 국력을 집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연개소문의 권력이 강력한 듯 보이지만 귀족연립정권 체제 아래서 여타 귀족과의 갈등이 잠재해 있었다. 이로 인해 연개소문이 죽은 후 그 자식들의 불화로 상징되듯이 귀족 세력의 분열이 표면화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국 간에 국가의 명운을 건 대결이 펼쳐진 것이다. 장기 간의 대규모 전쟁은 당시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었다고 보인다. 삼국 말기의 모순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삼국을 대등하게 통합하여 삼국 간 대립을 근본적으로 종식시키는 것, 중국 왕조 및 왜와 같은 주변국의 침략을 저지하는 것, 삼국의 다양한 문화 전통과 대외교섭망을 계승하고 확장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신라의 삼국 통합은 이 가운데 삼국 간의 대립을 종식시킨 것만 만족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마저 대등한 통합이 아니었으므로 재분열의 불씨를 남겼다.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을 차별한 것은 로마가 거대한 제국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을 맺은 정치체의 유력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한 것과⁸⁾ 대비된다.

8) 로마는 공화정 시기부터 식민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했고, 팽창 과정에서 동맹시와 속주의 유력자들에게 시민권을 허용했다. 이 추세는 제정 이후 서부와 동부의 광범한 속주로 이어졌다(김덕수, 2019. “시민권과 로마 정치 - 키케로, 「시인 아르키아스 변론」(기원전 62년)을 중심으로.” 『수사학』 36). 시민권의 확대가 로마 제국의 군사

IV. 후삼국 시기의 리더십과 통일

신라는 왕경 출신자들만이 골품을 받고 중앙의 관료가 되거나 지방관으로 파견될 수 있는 국가였다. 중앙이 지방을 지배하는 체제는 삼국이 모두 동일했다고 추정되는데, 신라는 이러한 질서를 멸망할 때까지 존속시켰다.

신라 말 중앙에서 왕위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느슨해졌다. 이를 배경으로 하여 실력을 키운 지방의 토호 세력이 각지에서 할거했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품을 받을 수 없던 지방세력은 중앙 정부로 진출할 수 없었고, 이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상황이었다. 백성들은 귀족과 사찰의 탈점으로 인해 몰락하고, 국가의 수취를 거부하여 도망하거나 도적이 되었다. 이를 방어한다는 명분으로 지방세력은 자기 본거지에 성을 쌓고 성주, 장군을 자처했다.

이 가운데 대세력이 견훤, 궁예, 그리고 왕건이었다. 먼저 궁예를 보면, 신라의 왕족 출신이었으나 왕위쟁탈전에서 패배하여 지방을 떠돌았다. 현재의 경기도 안성 지역에 자리 잡은 기훤에게 의탁했다가, 복원경(강원도 원주)의 양길에게 가서 강원도, 경기도 지역에서 전공을 세운 다음 독립하여 901년에 후고구려를 세웠다. 옛 고구려 땅 주민들의 신라 정부에 대한 반발을 이용하기 위해서 고구려 부흥을 내세우는 나라 이름을 지은 것이다.

(궁예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지난날 신라가 당나라에 군사를 청하여 고구려를 깨뜨렸다. 그런 까닭에 평양의 옛 도읍은 폐허가 되어 잡초만 무성하다. 내가 반드시 그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였다. 아마도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은 것을 원망하여 이런 말을 한 듯하다. 일찍이 남쪽으로 순행하여 홍주(경북 영주시 순흥면) 부석사에 이르러 벽에 그려진 신라 왕의 초상을 보고 칼을 뽑아 그것을 찼다. 그 칼자국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 (『삼국사기』 권50, 열전10 궁예)

궁예가 부석사의 건물 벽에 그려진 신라 왕의 초상화를 칼로 내리쳤다는 일화는 그의 반신라 의식이 얼마나 컸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신라의 전통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데 주력했으나 이를 대체할 새로운 이념이나 정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미륵사상을 내세우기는 했으나 관심법을 남용하는

• 정치적 기반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등 미신적인 색채가 짙어 현실을 개혁하는 데 한계가 뚜렷했다. 이로 인해 결국 918년에 부하인 왕건에 의해 왕위에서 축출당했다.

견훤은 지금의 경북 문경 출신의 지방인이었다. 그의 아버지인 아자개는 스스로 농사를 지어 먹고 살다가 집안을 일으켜 장군이 되었다. 견훤은 서·남해 지역을 방어하는 비장이 되어 점차 세력을 키웠고, 900년에 지금의 전북 전주에서 후백제를 건국했다. 그는 순수한 지방세력으로서 신라의 왕경 중심 지배 체제, 골품에 따른 신분 질서에 반대했으리라고 추정된다. 자신의 군사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금성을 급습하여 경애왕을 살해하고, 공산 전투에서 고려의 군사를 대파하는 등 유능한 지휘관으로서의 면모를 보인다.

또 중국의 오월국, 후당, 거란과 외교교섭을 벌일 정도로 대외 관계에 대한 안목을 갖추고 있었다. 견훤은 925년 후당으로부터 책봉을 받았고, 926년에는 오월에 사신을 보내 그 왕이 고려를 견제하도록 했다. 이듬해에는 고려를 배후에서 위협하는 세력으로서 거란과 교섭했다. 비록 실패했으나 일본과도 외교관계를 맺고자 할 정도로 국제정세의 변동에 민감했다(金哲堉 1975a).

5월에 견훤이 몰래 군사를 내어 강주를 습격하여 3백여 명을 살해하였다. 장군 유문이 항복하였다. …… 견훤은 여러 아내를 취하여 아들이 10여 명이었다. 넷째 아들 금강은 몸이 크고 지력이 많았다. 견훤이 특별히 그를 총애하여 왕위를 물려주고자 하였다. 그의 형 신검, 양검, 용검 등이 이를 알고서 걱정하고 변민하였다. 당시 양검은 강주도독, 용검은 무주도독이었으며, 신검만이 왕의 곁에 있었다. 이찬 능환이 사람을 강주, 무주에 보내 양검 등과 더불어 (왕위를 차지할 것을) 몰래 모의하였다. (『삼국사기』 권50, 열전10 견훤)

강주(경남 서부. 주치는 진주)는 당시 중국 및 일본으로 사신이 오가는 주요한 관문 가운데 하나였다. 대외교섭과 교역의 거점으로서 강주가 지정학적 중요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후백제와 고려는 이 지역을 놓고 치열한 쟁탈전을 벌였으며, 경순왕 2년(928) 견훤군의 기습 공격으로 신라 장군 유문이 항복함으로써 결국 후백제가 차지했다. 그 후 견훤이 둘째 아들인 양검을 강주 도독으로 삼은 것은 이 지역의 전략적 의의를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金昌錫 2005, 9-19).

그러나 견훤 역시 신질서에 대한 전망을 갖고 있지 못했다. 금성을 급습하여 경애왕을 죽인 뒤 왕건에게 보낸 서신을 보면, 종래의 지배체제를 재정비

하거나 군사적 위력을 사용하여 정치·사회의 혼란을 잠재우려는 태도가 보일 뿐이다.

당시 신라 사회가 안고 있던 문제는 지방민에 대한 차별, 골품제의 폐쇄성, 인민에 대한 수취가 가중된 점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민을 포용하고 골품제를 폐지하며 수취를 완화시켜야 했다. 이것이 신라 말기의 시대적 과제였고 이를 인식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사회적 리더십의 요체였다.

왕건은 예성강 유역의 송악(경기도 개성) 출신이었다. 조상 대대로 예성강의 수운과 서해의 해로를 이용하여 교역 활동을 벌였다. 여기서 축적한 재력과 지금의 황해도 평산에 설치되어 있던 패강진의 군사력을 장악하여 세력을 키워나갔다. 처음에는 궁예의 부하가 되었으나 그의 폭정이 계속되자 918년에 결국 궁예를 내쫓고 왕위에 올라 고려를 건국했다. 그리고 935년에 신라의 경순왕이 나라를 들어 고려에 귀부했고, 마침내 936년에 후백제를 멸망시킴으로써 고려는 후삼국을 통일했다.

8월 기유일에 여러 신하를 깨우쳐 이르시기를, “나는 각 지방의 도적들이 짐의 즉위 소식을 듣고는 혹시 변방에서 근심거리를 지을까 염려한다. 각 지방에 사자를 보내 넉넉한 선물과 겸손한 말로써 은혜를 베풀고 화해하려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귀부하는 자가 과연 많았으나 오직 권현만은 교방하기를 기꺼워하지 않았다.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원년)

후삼국 말기에 토지의 경계가 바르지 않아서 부럽에 법도가 없었다. 고려 태조가 즉위하여 먼저 토지제도를 바르게 하고 민에게서 거두는데 한도가 있게 하였으며, 농업과 누에치기에 대해 정성을 다하였으니, 가히 근본이 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았다고 말할 수 있다. (위의 책, 권78, 지32 식화1)

왕건은 즉위한 직후 겸손한 자세로 유력한 지방세력을 우대하여[重幣卑辭] 포섭하는 정책을 폈다. 그리고 백성들에 대한 수취를 경감하여[取民有度] 수확의 1/10만을 걷도록 했다. 정책을 입안하고 조칙을 작성하는 관부로서 내의성을 두고, 직접 『계백료서』와 『정계』를 지어 유교적 정치질서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는 신라의 골품제적 질서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나중에 광종이 과거제도를 실시하고, 성종대에 유교정치이념이 확립되는 기초가 되

었다(金哲堧 1975b).

그런데 태조 왕건은 성종 때의 유신인 최승로와 달리 중국 중심의 화이론적 세계관이나 예교의 질서에 매몰되지 않고, 삼국시기 이래의 전통문화를 중시했다.

중국의 제도는 지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하의 습속은 각기 그 지역의 특성을 따르는 것이므로, 모두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악과 시서의 가르침과 군신·부자의 도리는 마땅히 중국을 모범으로 삼아서 비루한 습속을 개혁하도록 할 것이지만, 그 나머지 거마·의복의 제도는 토풍을 따르도록 하여 사치와 검약의 균형을 얻을 것이니 중국과 꼭 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려사』 권93, 열전6 최승로)

우리 동방은 옛날부터 중국의 풍속을 흠모하여 문물과 예악이 다 그 제도를 따랐다. 그러나 지역이 다르고 인성도 각기 다르므로 굳이 같게 할 필요는 없다. 거란은 짐승과 같은 나라로서 풍속이 같지 않고 말도 다르니 의관의 제도를 삼가 본받지 말라. (위의 책, 권2, 세가2 태조 26년)

위의 두 언설은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 중 위의 조목은 화풍과 토풍의 조화를 추구한 듯 보이지만, 국가의 기본 질서를 이루는 ‘예악과 시서의 가르침과 군신·부자의 도리’는 중국 것을 좇도록 했다. 나머지 ‘거마·의복의 제도’ 역시 화풍을 따르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모두 바꾸기는 어려우므로 전통의 풍습을 따르도록 하고, 이를 통해 화려와 소박의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비교하면 태조 역시 화풍과 토풍을 모두 존중하지만 토풍 쪽에 더 비중을 두었다. 즉 문물, 예악과 같은 국가의 기본 제도조차 중국의 것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했다. 중국 중심의 화이론적 세계관을 경계하면서 동시에 신라-당 군사동맹 이후 중국 편향의 국가 질서와 문화가 압도하게 된 현실을 비판한 것이다. 왕건은 이어서 연등회와 천신, 산천, 용신을 제사하는 팔관회를 준행할 것을 후대의 왕들에게 당부했는데, 고대 이래의 전통을 중시한 그의 문화관, 다원적 천하관을 보여주는 조치이다(盧明鎬 1999, 24-28).

따라서 왕건의 후삼국 통일이야말로 진정한 최초의 민족 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신라 말기의 정치·사회적 모순의 원인과 과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신라와 후백제의 멸망은 고려의 군사력이 바탕이 되었지만, 왕건의 리더십은 기성의 질서를 때려 부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했으며, 이를 실현해나가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후삼국의 통일이 가능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이민족의 힘도 빌리지 않았다.

발해는 926년에 요나라에게 멸망되기 전부터 내분이 일어나 주민들이 고려로 망명해오기 시작했는데, 멸망 직후에는 왕족과 귀족들이 대거 고려로 흡수되었다. 발해의 계승국을 자처하는 국가가 서기는 했으나 오래 존속하지 못한 것은 고려의 발해 유민 통합 또한 성공적이었음을 방증한다.

V. 맺음말: 미래의 재통일을 위하여

우리는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936년 이후 1910년에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조선이 망하기 까지 거의 1천 년 동안 통일국가를 이루고 살아왔다. 1948년 남과 북에 각기 단독정부가 수립되어 분단된 뒤 2023년 현재까지 70여 년이 지났으나 분단의 역사는 1천 년에 이르는 통일의 역사와 비교하면 1/100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짧은 기간이다.

남북 분단의 원인은 수없이 많이 들 수 있고 복잡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일제의 강점이었다고 본다. 일제시기에 사회주의가 수용되면서 좌파와 우파는 독립운동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했고, 나아가 각자의 구상에 따라 해방 이후 서로 다른 체제의 국가를 건립하려고 다투었다. 만약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병합이 없었다면 좌파와 우파로 나뉘었더라도 우리에게 맞는 근대화의 길을 찾고, 전통을 기반으로 세계와 교류해가면서 형성되는 새로운 문화와 질서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서로 경쟁하고 보완하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 이남 사회의 심각한 좌우 갈등의 연원은 남북 분단,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강점기의 사회주의와 민족개량주의 노선의 대립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여겨진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폐해가 생겨났지만, 분단 상황에 놓여 있는 현재의 남과 북의 주민들이 과연 조선 시기의 사람들보다 활동 범위와 사고의 폭이 넓다고 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비자만 받으면 세계

방방곡곡을 누비고 다닐 수 있지만 정작 이북에는 갈 수 없고, 이북 주민들은 이남을 왕래하지 못한다. 이북은 서해와 동해의 북부 바다를 영해로 삼고 있지만 남한 정부가 남해를 봉쇄하면 배를 타고 서해에서 동해로, 동해에서 서해로 진입할 수 없다. 남쪽은 휴전선으로 가로막혀 중국, 러시아와 육로가 끊긴 섬과 같은 처지에 놓여있다.

육로와 해로의 제한 뿐 아니라 남북 간의 이념 대립과 보안 법률 때문에 학문·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심각하게 저해되어왔다. 이남 사회에서 1990년대까지도 공안 사건이 빈발했으며, 정부를 매섭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일가친척이라도 용공 분자라고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고민할 정도로 반공은 인륜보다 앞서는 가치였다. 이에 비해 조선 사회는 분단 상황을 배경으로 한 이념 대립이 없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다양한 모색이 가능했다. 예를 들어 16세기 선조 대의 인물인 정여립은 ‘천하공물(天下公物)’을 내세웠는데, 이는 천하 곧 조선이라는 나라가 국왕의 전유물이 아니라 공적인 것으로서 만민에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지향을 담고 있다. 대동사회론을 토대로 삼아 반왕정, 반신분을 추구했으나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주장이었다. 반란 세력으로 몰려 죽음에 이르고 말았으나 철저한 성리학 국가였던 조선에서 이러한 혁신 사상이 싹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남과 북에서 이러한 혁신 사상이 꽃필 토양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조선이 제국주의 침략에 의해 몰락하는 사태가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을 것이다.

현재 남북의 주민들은 이념 대립뿐 아니라 군사적 대치 상황 때문에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고, 막대한 군사비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분단 상황이 남과 북 모두에게 이념, 문화, 경제 등 모든 부문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재통일이 필요하다. 70여 년 분단의 역사를 끝내고 1천 년을 이어온 통일국가의 역사를 되살려 다시 이어 나가야 한다.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지금까지 살펴본 삼국 통합, 후삼국 통일의 경험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진정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여건 속에서 시대적 과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것을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해 어떤 군사 작전을 쓰고, 외교 전략을 구사하며, 통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재원을 찾아 나서는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과업이다. 그리고 삼국과 후삼국 시기에는 이

를 국왕과 유력자가 맡았지만, 이제는 개인 각자가 국가의 주인인 시대가 되었으므로 정치 지도자는 물론 시민 스스로가 리더가 되어 현재의 자리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렇다면 21세기의 초두에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시대적 과제는 무엇인가. 우선 개인의 생존이 보장되어야 한다. 전쟁 없는 평화가 확보되어야 하고, 노동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적 정의가 보장되어 모든 사람은 평등한 기회를 갖고,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의 능력은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 문화면에 있어서는 전통문화와 세계문화의 조화가 중요하다. 수천 년을 이어온 전통문화는 우리 정체성의 핵심임은 물론이고 세계 속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원천이다. 전통문화의 기반 위에 세계문화와 교류하고, 필요한 것은 외부로부터 과감하게 수용해야 한다. 특히 보편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인간 존중과 인종주의나 지역감정과 같은 혐오와 편견의 타파, 방역과 범죄에 대한 국제적 협력에 대해서는 적극 참여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전통에 기초하면서도 보편성을 잃지 않는 다양한 문화의 창조가 가능하고 인류 문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상이 현재 우리 민족이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각자가 이를 인식하고 실천해가는 것이 민족 재통일의 첩경이며, 그 길에서 앞서 살 펴본 삼국 통합과 후삼국 통일의 성과와 한계가 시금석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김창석은 한국고대사를 전공했으며, 고대국가의 재정과 교역, 법제 분야를 연구해왔다. 대표 저술은 『한국 고대 대외교역의 형성과 전개』(2013, 서울대출판문화원)와 『왕권과 법』(2020, 지식산업사)이다. 최근에는 고대 관문서의 형식과 작성 방식을 중국, 일본의 사례와 비교해 연구하고 있다.

참고문헌

- 권오영. 2019. 『해상 실크로드와 동아시아 고대국가』. 서울: 세창출판사.
- 권태억·정용욱. 2008. “근·현대 한국 민족주의의 형성과 전개.” 한국사특강 편찬위원회 편. 『(개정신판) 한국사특강』.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덕수. 2019. “시민권과 로마 정치 - 키케로, 「시인 아르키아스 변론」(기원전 62년)을 중심으로.” 『수사학』 36.
- 金昌錫. 2005. “靑州의 祿邑과 香徒 - 신라 하대 지방사회 변동의 일례.” 『新羅文化』 26, 9-19.
- 金昌錫. 2009. “6세기 후반~7세기 전반 百濟·新羅의 전쟁과 大耶城.” 『新羅文化』 34.
- 김창석. 2010. “6~8세기의 동아시아와 한중관계.” 이익주 외.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의 한중관계사 - 제언과 모색』.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金昌錫. 2018. “신라 중대의 國制 개혁과 律令 改修.” 『歷史學報』 238.
- 김창석. 2020. 『왕권과 법 - 한국 고대 법제의 성립과 변천』. 서울: 지식산업사.
- 金哲堧. 1975a. “後三國時代의 支配勢力의 性格.” 『韓國古代社會研究』. 서울: 知識産業社.
- 金哲堧. 1975b. “韓國古代政治의 性格과 中世政治思想의 成立過程.” 『韓國古代社會研究』. 서울: 知識産業社.
- 盧明鎬. 1999. “高麗時代의 多元的 天下觀과 海東天子.” 『韓國史研究』 105, 24-28.
- 노중국. 2010. “醫·藥 기술의 발전과 의료 활동.” 『백제사회사상사』. 서울: 지식산업사.
- 盧泰敦. 1997. “한국민족형성시기론.” 『韓國史市民講座』 20. 서울: 一潮閣.
- 노태돈. 1998a. “삼한에 대한 인식의 변천.” 『한국사를 통해 본 우리와 세계에 대한 인식』. 서울: 풀빛.
- 노태돈. 1998b. “연개소문과 김춘추.” 『한국사를 통해 본 우리와 세계에 대한 인식』. 서울: 풀빛.
- 노태돈. 2009a. “연개소문론.” 『한국고대사의 이론과 쟁점』. 서울: 집문당.
- 노태돈. 2009b. 『삼국통일전쟁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79. 『조선전사 1』.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손영종 · 박영해. 1987. 『조선통사(상)』.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윤경진. 2019. “「청주운천동사적비」의 건립 시기와 건립 배경 - 최근 비판에 대한 반론과 추가 판독.” 『韓國史研究』 186.
- 李淳鎭 外. 2001. 『大同江文化』. 平壤: 外國文出版社.
- 전덕재. 2002. 『한국고대사회의 왕경인과 지방민』. 서울: 태학사.
- 한영우. 2014. 『다시 찾는 우리역사』. 서울: 경세원.

Abstract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in Ancient Period and Its Implications for Reunification

Kim, Changseok*

Unification is that groups formed based on common historical experiences and homogeneous cultures are divided and then combined into a single political body. The residents of the Three Kingdoms may not have recognized each other as the same nation, but it was already established as an objective entity and a group that became the original form of a nation. However, *Silla* implemented a policy of discrimination against the absorbed *Baekje* and *Koguryeo* residents. In addition, it was not able to inherit the wide-area diplomatic and cultural networks that *Baekje* and *Koguryeo* had. Therefore, *Silla*'s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cannot be acknowledged, and in reality, *Parhae* claimed to be a successor to *Koguryeo* and developed a period of South and North states.

Gungye contributed to the destruction of *Silla*'s traditional order, but failed to present any new ideology or policy to replace it. *Gyeonhwon* was a competent military commander and had an eye for foreign relations, so he engaged in diplomatic negotiations with various countries. However, there was no prospect of a new order, only an attitude to calm political and social confusion by reorganizing the existing governance system or using military power.

* Professor of Department of History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cseok@kangwon.ac.kr

On the other hand, *Wang Geon* tried to implement policies to solve structural problems, such as preferential treatment of strong local power and easing tax receipt of the people, and establish a Confucian political system. This goes beyond *Silla's* antique order based on *Golpum* system. In addition, it was not buried in the Chinese-centered worldview or cultural view, but emphasized traditional culture since the Three Kingdoms period. *Parhae* began to defect to *Koryeo* even before it was destroyed by the *Liao* Dynasty, and immediately after it was destroyed, a large number of royalty and nobles were absorbed into *Koryeo*.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Wang Geon's* accomplishment is the first national unification in Korean history.

Through the experience of the integration of the Three Kingdoms and the unification of the Later Three Kingdoms, we find that accurately recognizing the tasks faced by each era and trying to solve them led to the fruit of national unification. The reunification of the nation can be accelerated when sharing awareness of today's fundamental problems, such as securing the right to live, social justice, and harmony between traditional and world cultures, and practicing them.

Key Words: Unification, Integration of Three Kingdoms, Unification of Later Three Kingdoms, Leadership, Reunification